

1. 집에서 죽었을 때 연락은?

집에서 죽었을 때 119에 신고하면 복잡해진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야 되므로 오래 걸린다.

상조회사로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연락한다.

난 건강의 집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홍종원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려고 한다.

2.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은 3일에 1500-2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쓰자구나.**

납골당이나 묘지보다는 수목장 그것도 **집 가까운 곳에 조금만 뿌려 추억을 하도록 한다. (화장할 때 조금만 달라고 부탁한다.)**

3. 장례방법

주위에 알리지 않고 빈소 없이 하루 밤만 보낸 뒤 바로 화장을 하고 들에 뿌린다.

화장은 인터넷으로 e-하늘장사로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주소지 화장장으로 해야 싸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별도 파일 참고)

4. 이상 멀리 가는 안상구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약간 귀찮더라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시어 제가 원하는데로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해용!

적은데 장례식 때도 상조회사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399, 499, 599 라는 숫자는 상조회사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결혼할 때는 신혼집 비용이 가장 큰데, 장례식 때는 대개 장례식장 비용이 가장 큼니다. 빈소 사용료와 식사비가 상식 선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총 얼마가 들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 중산층의 경우 최소 1,500만 원 수준이며, 보통 2,000만 원이나 그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문상객이 많고, 비싼 장례용품을 쓰면 3,000만, 4,000만 원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장례식장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빈소 사용료가 하루 약 50만~300만 원이며 시신 안치료 영결식장 사용료도 따로 내어야 합니다. 식사 비용도 매우 비쌌습니다. 밥과 육개장, 돼지 수육, 전, 과일 등을 내는 서울 주요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인 식사비가 1만 5,000원~2만 원입니다. 4명 한 상 차림에 6~8만 원인 셈이죠. 그런데 한 명이나 두 명이 가도 한상을 차려줍니다. 정말 비싸고, 천편일률적이고, 맛은 그저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영정 주변의 제단 꽃 장식 비용은 50만~200만 원
인데 마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일부 장례식장에선
자기들이 지정한 곳만 이용하게 합니다. 일종의
'갑질'인 셈이죠. 그 밖에 수의나 관 등 장례용품도
자기 것만 쓰게 하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선호하는 장례식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장례식장
용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같은 물건이라도 상조회사
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기 물건을 쓰지 않으면 빈
소를 대여하지 않는 '악질 갑질'도 있고, 적당히
타협해서 용품의 일부만 병원 것을 사용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의 꽃 장식이나 장례용
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지방이나 비인기 장례식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서울 최고 인기 병원 한 곳이 외부 용품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아무리 착한 병원이라도 용품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조회사 도움 없이 바로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면 비싼
꽃 장식이나 용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이 임박하면
상조회사에 전화해서 장례식장부터 장지까지 일괄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순조롭게 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조회사를 '상례 (장례)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조 상품이 보통 299만~499만 원 수준인데, 이것이 상례를 치르는데 드는 총비용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례 (장례)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비용만 399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엔 상조 회사가 엄청나게 비싸다 생각하겠죠.



상례(상조)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속 상례 지도사가 3일간 상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잡는 것에서부터 빈소 설치, 제단 장식, 입관, 발인, 화장(또는 매장), 봉안시설 선택 등 상례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대신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이나 수의 같은 장례용품, 제단 장식, 납골당 등에 대해서도 [☞ 전화상담신청](#) 것을 권유하려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299만~499만 원 상례 상품 중 3일간 상례 지도사의 서비스 비용은 50만 ~6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관, 수의, 상복, 유골함, 각종 입관 용품, 각종 빈소 용품, 앰불런스, 운구용 리무진, 장의 버스, 염습사, 접객 도우미 비용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패키지로 묶어 299만 ~499만 원에 판매하는데 만약 이것들을 따로따로 장례식장에서 구매하면 299만~499만 원보다 대부분 많이 듭니다. 결국 50~60만 원 주고 상례 지도사를 전속 고용하면 이들이 상례의 모든 복잡한 일들을 대신할 뿐 아니라 게이트 키퍼로서 6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상이 임박하면 '당연히' 상례서비스 회사부터 물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상례서비스 상품은 상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객 도우미 4명 (또는 40시간)으로는 일손이 달리므로 도우미를 늘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의 버스나 리무진은 통상 200km 정도만 보장되며 운행거리가 1km 늘어날 때마다 1,000~2,000원씩 추가됩니다. 관이나 수의를 규정 품목보다 업그레이드해도 추가 비용이 들겠지요. 반대로 수의나 유골함을 따로 준비해서 필요 없다면, 또는 장지에 동행할 사람이 많지 않아 장의 버스가 필요 없다면 그 비용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주의할 것 또 한 가지!!



장례식장들은 선불제 상조미가입 유족에게 장례식장과 연결된 후결제(후불제) 서비스 업체를 소개해줍니다. 장례식장 소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런 업체는 그야말로 '가두리 영업'을 하는 셈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곳은 서비스 품질이 낮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상이 발생하면 장례식장보다 먼저 상례서비스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으므로 적당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는데 요즘은 대부분 납골당에

납골당비+관리비

모십니다. 납골당 비용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같은 시설이라도 실내인가 실외인가, 납골 위치가 어디쯤인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납골이 실외 납골보다 비싸며, 5~8칸으로 된 납골 선반 중 눈높이에 맞는 중간이 맨 위나 맨 아래보다 비쌉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형은 500만 부부형은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개인형 1,000만 원, 부부형 2,000만 원이나 그 이상의 '럭셔리 납골당'도 등장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납골당은 100만~150만 원 수준인데 이런 곳은 납골 위치를 유족이 지정할 수 없고 순서대로 칸을 채워 나간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공설 납골당은 납골 기간이 15~30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납골당 비용과 별도로 유족은 연 5만~10만 원의 관리비도 내는데 만약 중간에 관리비가 미납되면 유골함을 꺼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목장이 증가 추세인데 한 나무 아래 여러 개의 유골함을 묻는 '공동목(木)'의 경우 가격이 납골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납골 장소가 답답한 선반이 아니라 나무 밑이라는 점 때문에 수목장이 인기인데 직접 보시면 생각만큼 멋지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최근 조성됐기 때문에 나무가 아직 어리고, 나무 사이의 간격도 좁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정사진

상례를 치르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 닥치면 허둥대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고 장례용품이나 장지 등의 선택에도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러 부산하게 상을 치르고 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영정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기억하고 싶은 표정과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억하고 싶은 모습의 사진 여러 장을 동영상으로 편집한 뒤 접객실 TV 모니터에 연결해 문상객에게 보여줘도 좋습니다.

부고를 알릴 연락처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부고란 것이 미묘해서 알려서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알리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나 오해를 사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소와 장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1순위와 2순위 장례식장을 미리 생각해 두면 좋고, 납골당이나 수목장지도 가능하면 여러 곳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도움 받을 상조회사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알아서 다 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맞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자기들과 연결된 상조회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좋은 가격,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선불 상조 미가입자들은 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후결제(후불제) 상조회사 중 한곳을 선택해서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방문진료' 하는 의원입니다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강의집 의원 홍종원 원장 인터뷰**

외래 진료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문진료를 주로 합니다. 저는 방문진료로 한 달에 50~60명가량의 환자를 만납니다. 함께 일하는 김창오 선생님은 100명 정도 방문진료를 합니다. 저희는 강북구만이 아니라 인근 노원구, 성북구까지 나갑니다. 중증장애인, 누워만 있어야 하는 와상환자, 요양원의 고령환자 등을 주로 만납니다. 환자분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람직한 임종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임종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생명에 대해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개원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고마워한다는 데 대해 보

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나 고혈압·당뇨병·암 등의 만성질환자,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 뇌혈관질환자, 산모, 신생아, 이 외에 의사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평생 온돌방에서 지냈던 노인이 어느 날 병원 침대 위에서 잠 못 이루는 상황은 단순히 환경의 낯설이나 불편함 때문이 아니다. 이 상황은 자신의 몸과 집에 축적된 관계망의 상실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환자들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내 몸이 편안한 집'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현실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누구는 집에서(시설에서도) 빈틈없는 돌봄을 받으며 임종하고, 다른 누구는 집에(시설에서도) 고립되어 사망한다. 생애 말기 돌봄이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집안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애 말기 돌봄은 대개 집안일로 시작된다. 국어사전은 집안일을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일. 빨래, 밥하기, 청소 따위'로 정의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던 사람이 생애 말기에 타인에게 먼저 '의존'하는 것이 이 집안일이다. 사전은 집안일과 어울리는 '집안사람'이 누구인지도 알려준다. **바로 아내(집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나 지금이나 집안일은 대개 여성의 역할로 여겨진다. 생애 말기 돌봄에서 이 집안일은 차츰 간병뿐만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감정노동으로도 이어진다.** 집안일이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집에서 임종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집에서 주로 여성(할머니·어머니·며느리·아줌마·딸 등)이 환자를 위해 이 집안일을 도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시작부터 생애 말기 돌봄은 성별 분업에 기반했고, '집 안'에 고립되어 있었다. 공적 돌봄과 복지의 공백은 개인(가족)의 '도리' '효' '천성' '사랑'과 같은 언어와 실천으로 메워졌다.

고인이 운명하시면 상조회사를 통해 가장 먼저 빈소를 잡게 됩니다. 원하는 빈소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는 운명하신 시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3일장을 치르므로 매일 아침이면 전체 빈소의 절반이 빠져 나갑니다. 따라서 새벽이나 오전에 운명하시면 원하는 장례식장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반대라면 원하는 곳을 잡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상조회사의 능력 여부와 무관한 일입니다. 만약 저녁 시간 이후 돌아가시면 어차피 문상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신만 안치하고 빈소는 그 다음날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소가 정해지면 앰블런스로 운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집에서 운명하신 뒤 경찰에 전화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경찰 조사가 끝나야 운구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앰블런스를 이용해 장례식장으로 가면 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와 구체적인 장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빈소에선 가장 먼저 제단에 꽃 장식을 하고 영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선 자기들과 연결된 회원에서만 꽃 장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명백한 ‘불법 갑질’이지만 빈소를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장례식장 회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를 통하면 장례식장 소개 회원보다 20~30% 저렴합니다.

제단을 마련하는 동안 상주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부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쯤 접객 도우미도 배치돼 음식을 대접할 준비가 갖춰집니다. 위생문제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음식만 이용해야 하는데 마른안주 등 간단한 것은 외부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일차에는 염을 하고 수의를 갈아입혀 관에 넣는 입관식을 하고, 3일차에 발인을 한 뒤 매장 또는 화장을 하면 장례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연사 이거나 노환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병원 장례식장같은데 전화하면 구급차 같은거 바로 보내줍니다

굳이 119 신고할필요는 없구요

그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해 의사 한명이 확인하구요..

그리고 장례절차를 밟습니다.

장례식장 안가면 집에서 옛날처럼 하면 되지요

요즘 번거로워서 장례식장 가잖아요

3일장 보통하는데 화장을 하던지. 매장을 하던지 해야지요
장례식장 가면 화장한다 하면 먼저 화장장 예약해야 되요
알아서 해 줍니다

참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했는데
병원 장례식장이 아닌 장례식만 하는곳이어서
사망 진단서 못 받아 거주지 통장님의 인우보증서 받았어요
가까운 병원에 사망진단서 받아도 되구요

병원장례식장 아닌경우 이게 번거로웠어요

아파트 계단에서 누군가 쓰러져 돌아가신적 있어요..그걸 보고는 제가 119 불렀는데요.. 돌아가신분은 병원으로 안 옮겨주시던데요.. 거기서 바로 병원 앰블런스나 개인 앰블런스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사망했는지 살아가신지 119요원이 바로 확인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돌아가신게 확실하면 119 부르지마시고 병원장례식장에 전화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119는 사체를 안 실으려 해요.
병원 앰블런스를 불러야 해요.
병원 영안실 가면 의사가 사망진단 해 줍니다.

사고사가 아니라면 장례치를 병원에 전화해서 앰블런스 불러 병원 가서 응급실 들러 사망진단서 발급받고 장례 치르면 되요.

사고사라면 경찰신고도 해야하고 현장보존 해야하구요, 경찰 온 뒤에 앰블런스 부릅니다.

경찰은 병원 동행해서 사인 밝혀지면 그에 따라 후조치가 있구요.. 사고사의 경우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당연히 장례는 치르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돌아가신건지 아님 정신을 잃으신건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경향이 없어서... 닥치면 진짜 그래요.

일단... 숨을 거두신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의식불명이길 바라며 119에 신고 했어요.

119에서 오더니 사망하신걸로 확인된다면서

자기네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든 병원에 모셔다드릴 수 없으니

병원에 연락해서 앰블런스를 불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원하면 자기네가 불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 없으니까 (119에 신고하는데 집 주소도 생각 안날만큼 정신 없거든요)

그렇게 해달라 부탁해서 119 구급대는 가고, 앰블런스가 왔어요.

(이렇게 부르면 병원 앰블런스가 아니라 앰블런스 영업(?) 하는 차가 오더군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가시던 대학병원으로 갔구요.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암튼 그정도 금액을 앰블런스기사에게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응급실로 들어가서 사망진단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긴걸로 알아요.

그 답에... 지병 있으셨다 했잖아요.

간소하게 하자 하셔서 화장하기로 하셨었던 터라 수의 같은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관, 수의 뭐 그런거를 장례식장에서 정하고, 화장장 예약도 그때 했어요.

영정사진도 일반 증명사진으로 키워주는 것도 하니까

따로 준비한게 없으면 장례식장 사무실에 주심 알아서 해주구요. (뭐.. 돈으로 다 되더라구요.)
